

## 라틴아메리카에서 우고 차베스의 이미지(1995년~2011년)

라틴바로미터<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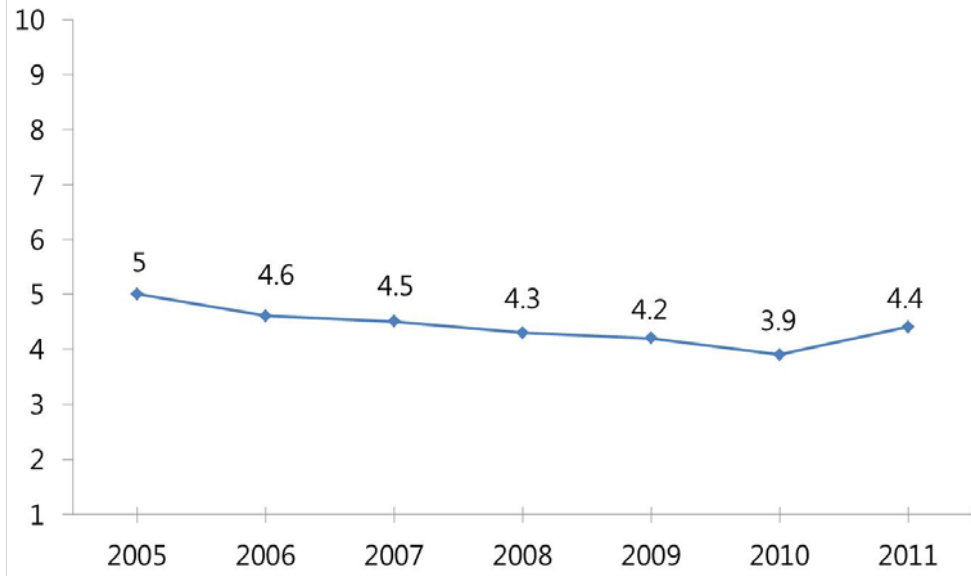
### 1. 라틴아메리카인은 차베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고 차베스에게 몇 점을 주겠습니까? 최저는 1점(매우 나쁨)이며 최고는 10점(매우 좋음)입니다.” 이런 설문에 대해서 라틴아메리카인은 지난 7년간(2005년~2011년) 최고 5점에서 최저 3.9점을 주었다(〈그림 1〉참고). 차베스는 한 번도 6점을 넘기지 못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차베스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2005년 이래 평가 수치는 하락했으며,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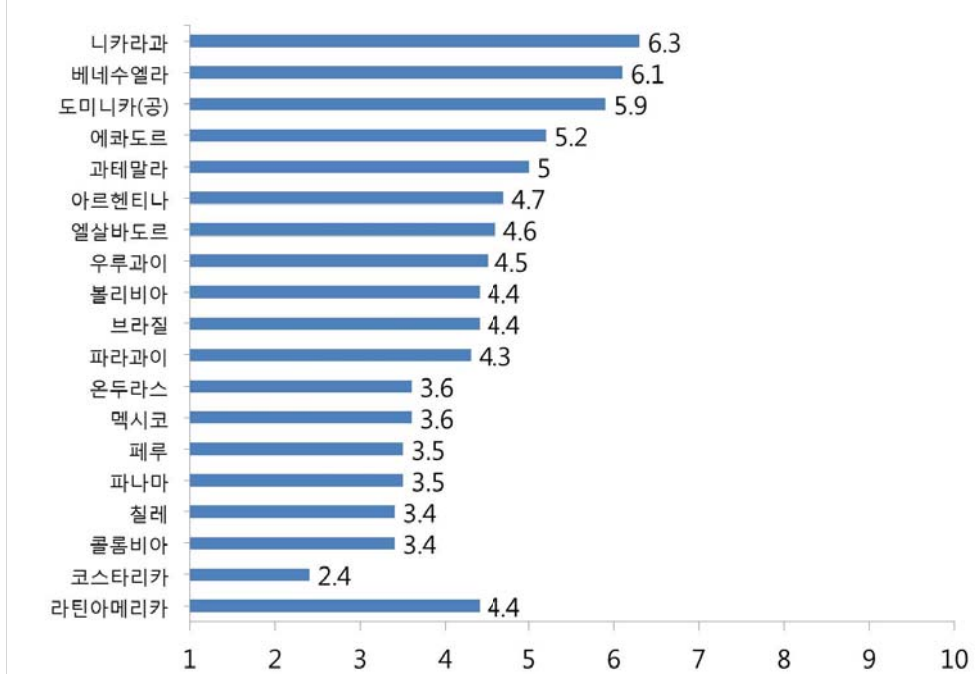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듯이, 2011년 평가에서 상위를 기록한 국가는 니카라과(6.3), 베네수엘라(6.06), 도미니카공화국(5.9), 에콰도르(5.3)이며, 가

2) 이 글의 출처는 라틴바로미터 (<http://www.latinobarometro.org/latino/LATContenidos.jsp>) 이다. 차베스 서거 직후인 2013년 3월 7일 작성한 글이어서 제목부터 오타가 있고, 일부 자료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차베스 집권 초반부에 해당하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가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옮긴이.

〈그림 1〉 차베스에 대한 연도별 평가(라틴아메리카 평균치)



〈그림 2〉 차베스에 대한 국가별 평가(2011년)



장 낮게 평가한 국가는 코스타리카(2.4)이다. 볼리비아(4.5)와 아르헨티나(4.8)의 평가는 자국 대통령과 관계를 고려할 때 의외로 낮다. 브라질의 경우도 4.35에 그쳤다.

지난 7년 동안 차베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았던 해는 2005년이다(〈표 1〉 참고). 차베스의 이미지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나빠졌다가 발병 소식 이후 다소 회복되었다.

〈표 1〉 라틴아메리카인의 차베스 평가(국가별, 연도별)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2005~2011)
아르헨티나	5.1	5.6	5.1	5.0	4.2	4.1	4.7	4.8
볼리비아	5.7	4.6	4.5	4.0	4.2	4.1	4.4	4.5
브라질	4.0	4.1	3.8	3.7	3.9	3.9	4.4	4.0
콜롬비아	4.1	3.9	4.7	3.2	2.2	2.7	3.4	3.5
코스타리카	3.8	3.0	2.7	2.8	2.7	2.9	2.4	2.9
칠레	3.4	3.6	3.2	2.9	2.9	3.4	3.4	3.3
에콰도르	5.4	5.1	5.6	5.1	4.2	4.3	5.3	5.0
엘살바도르	4.2	4.1	4.3	5.1	4.7	4.0	4.6	4.4
과테말라	4.7	4.5	4.8	5.0	4.6	4.3	5.0	4.7
온두라스	4.5	4.4	4.4	3.9	3.1	2.7	3.6	3.8
멕시코	5.0	3.5	3.0	3.3	3.3	3.2	3.6	3.6
니카라과	4.5	4.7	5.4	5.0	4.7	5.3	6.3	5.1
파나마	3.8	4.2	3.3	3.0	2.7	3.1	3.5	3.3
파라과이	6.1	5.5	5.2	6.1	4.3	4.4	4.3	5.1
페루	4.9	3.0	4.0	4.0	2.9	2.9	3.5	3.6
우루과이	5.9	4.9	4.5	4.7	4.2	4.5	4.5	4.8
베네수엘라	7.1	7.1	6.6	5.4	5.6	5.5	6.1	6.2
도미니카공화국	5.6	6.0	5.3	5.4	5.1	4.6	5.9	5.4
전체	5.0	4.6	4.5	4.3	3.9	3.9	4.4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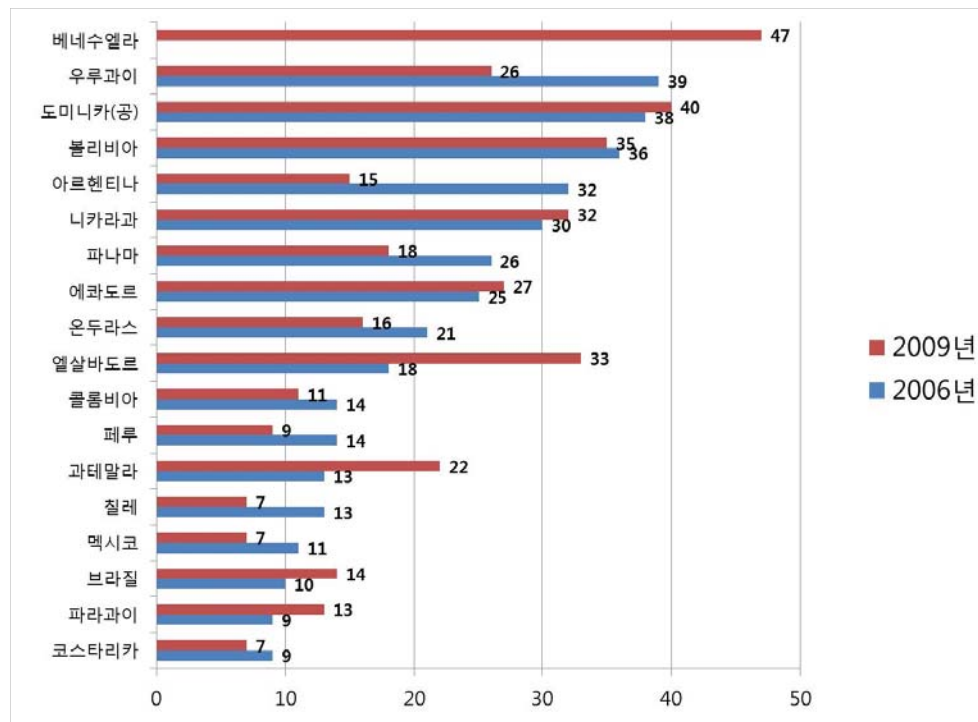
좌파가 집권한 국가라고 해서 차베스 평가가 반드시 좋지는 않다. 오직 니카라과만이 좌파 집권과 차베스에 대한 평가 사이에 완전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코스타리카(2.9)와 칠레(3.3)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닥친 2009년에서 2010년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최고조에 달했다.

## 2. 국가별 차베스 지지도(2006년~2009년)

설문: 귀국(국가명)과 관련하여 차베스가 언급하거나 행한 것에 대해 찬성하니까, 반대하니까? 잘 모른다면……(아래 그림은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합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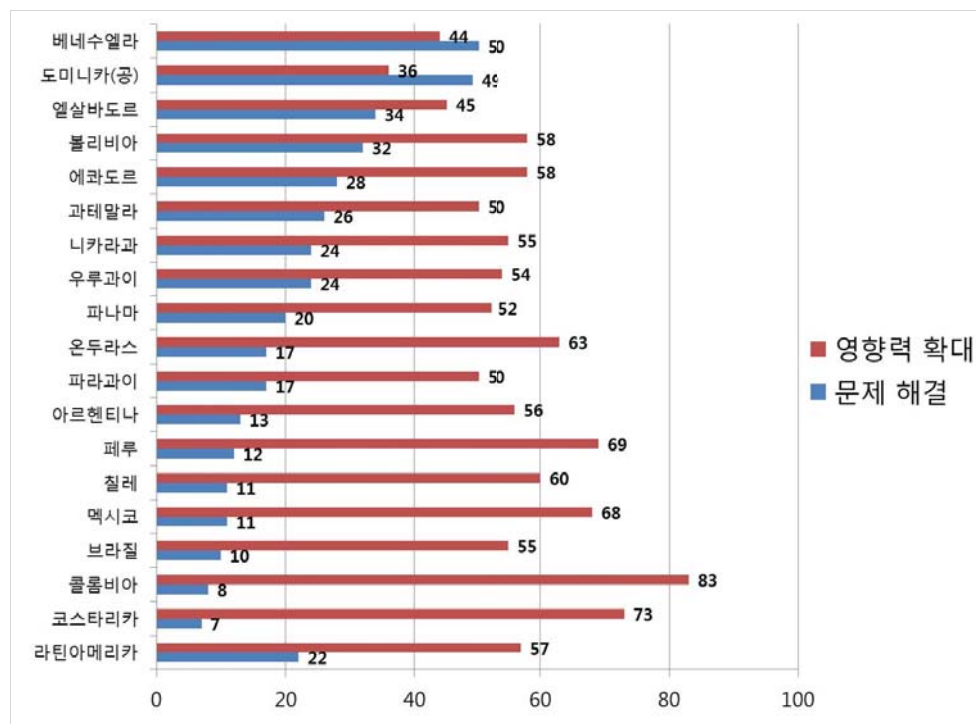
\* 2006년 베네수엘라 자료는 없음

오른쪽 그림은 2006년과 2009년의 차베스 지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결과는 첫째, 지지도가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우루과이의 경우,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정적인 지지

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베스 지지도는 낮다.

### 3. 차베스는 타국의 문제에 도움을 주었는가 아니면 영향력 확대를 노렸는가(2009년 국가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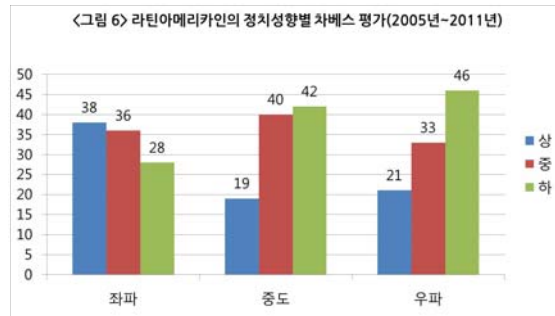
설문: 일부에서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타국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며, 일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당신의 생각에 더 가깝습니까?



2009년의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상당수 국민은 차베스가 민중을 도와주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불신과 의심은 차베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 4. 정치성향별 차베스에 대한 평가

좌파라고 생각하는 라틴아메리카인은 차베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우파 라틴아메리카인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그런데 좌파가 집권한 볼리비아, 브라질, 그리고

\* 매우 좋다(10점), 매우 나쁘다(0점). 위 그림에서 상은 7~10점, 중은 4~6점, 하는 0~3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남부(Cono Sur) 국가에서 차베스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국가에서 차베스 평가는 이념보다는 국민감정에 기울어져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국민들은 외부의 ‘도움’, 즉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을 싫기 때문이다. 남미남부에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여기는지도 모를 일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인데, 차베스의 지도력은 이미 검증되었다. 근래에 들어와 라틴아메리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차베스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국가에서(쿠바는 제외)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된 시기에 최초로 등장한 정치 지도자이다.

차베스의 지도력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인의 인식은 부정적이지만, 차베스는 이미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로서 역사에 남을 만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차베스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미국을 정면 공격했다는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박병규]